

NOROO

AUTUMN · 2023

VOL.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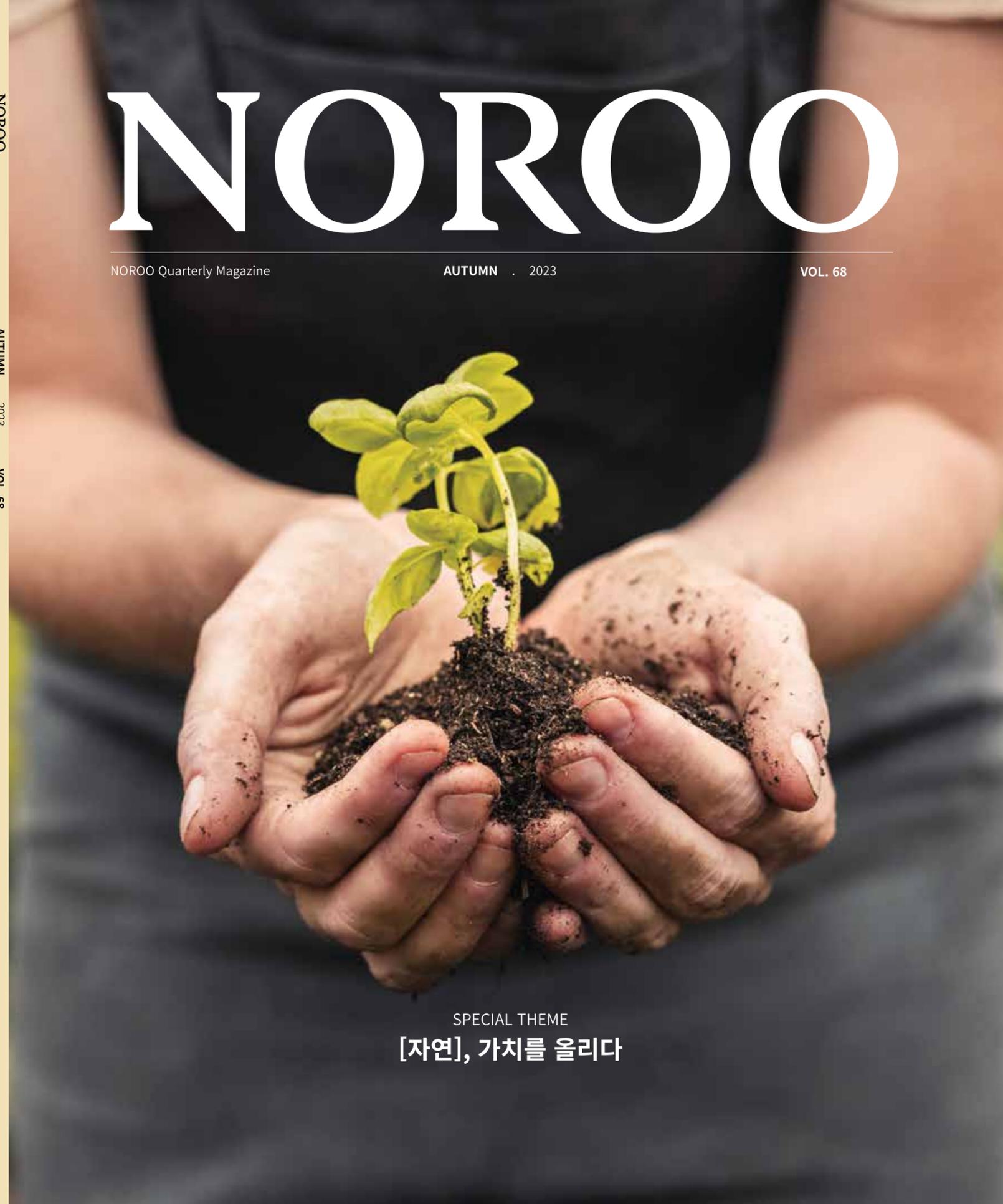
NOROO

NOROO Quarterly Magazine

AUTUMN · 2023

VOL. 68

NOROO



SPECIAL THEME
[자연], 가치를 올리다



SPECIAL THEME



[자연], 가치를 올린다

- 06 INTERVIEW 종자 한 톨의 가치를 무궁하게
더기반 종자가공센터
- 10 VIEWFINDER 철저히 엄선하고 공들여 가공한다

CULTURE GALLERY

- 14 COLOR SOUND 영감과 위로를 주는 SOUND OF COLOR
- 16 TRAVEL 가을엔 노을 하루 끝의 하늘

28 . PAINT FOR ART 1



40 . COLORFUL SPACE



44 . COLORFUL SPACE 2



NOROO PEOPLE



- 20 HIGH FIVE 미래를 그리며 함께하는 우리
2023 신규 입사자 역량 향상 과정
- 24 FOCUS ON NOROO 고효율 친환경 UV-Q로 세계 최초를 이루다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 도장 시스템 UV-Q
- 28 PAINT FOR ART 1 NOROO의 컬러로 만나는 FRIEZE SEOUL
FRIEZE SEOUL with NOROO
- 32 PAINT FOR ART 2 색조 위에 펼쳐진 공예의 향연
청주공예비엔날레 with NOROO PAINT
- 36 PAINT FOR ART 3 하나의 주제, 두 개의 무대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3 <GRIMENTO> with NOROO PAINT
- 40 COLORFUL SPACE 1 컬러 속에 머무르다
포포인트스 바이 웨라톤 조선, 서울 명동 with NOROO Paint
- 44 COLORFUL SPACE 2 Mobility와 Art, NOROO의 컬러로 만나다
BMW 내쇼날모터스, 서울옥션 블랙랏의 팝업 스토어 with NOROO PAINT
- 48 NEWS BRIEFING
- 51 QUIZ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정석찬 과장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차장

(주)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박지현 대리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노루오토코딩 경영기획팀 안세현 과장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김지안 주임

(주)노루코일코딩 인사총무팀 추정민 주임
칼라메이트(주) 경영지원팀 이선화 대리

SPECIAL THEME

[자연], 가치를 올리다

15년 전의 영화, <월-E>에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된 지구를 구한 것은 작은 새싹 하나였다. 우주선과 기계에 의탁해 수동적 삶을 살던 인류는 여린 초록 새싹 하나로 인해 활력을 얻고 지구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인류에게 희망을 준 영화 속 새싹은 자연의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새싹, 즉 종자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더기반의 종자 가공센터를 만난다.





종자 한 톨의 가치를 무궁하게

더기반 종자가공센터

인류의 문명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씨앗을 키우고 다시 씨앗을 얻기 위해 그 옆을 지킨 인류는 정착을 통해 기반을 갖추고 문명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하나의 씨앗이 키워낸 것은 10배, 100배의 수확량을 넘어 인류 전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종자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곳이 더기반 종자가공센터이다.

종자를 새롭게, 이롭게

“더기반 종자가공센터는 육종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고정화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된 품종을 라오스 등 해외나 국내에서 대량 생산한 후, 그 종자들을 들여와 검사하고 가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생산 기획팀, 검사팀, 가공팀의 3개 팀이 이 역할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종자라면 씨앗 아닌가. 식품 가공이나, 금속 가공 등은 흔히 들어 익숙한데, 가장 원초적이라 근원적 자연물이라 생각되는 씨앗에도 가공이 들어간다니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일까.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한 종자가공센터의 조찬구 부장은 대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 종자 가공 중 코팅이 있습니다. 종자를 코팅하면 첫째, 외관의 품질을 높이고 둘째로는 살균제를 혼합해 넣음으로써 토양의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종자를 보호해 주죠. 특히 저희 더기반의 코팅제는 NOROO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작업자에게도 무해합니다.” 그의 설명대로 코팅된 종자는 분홍, 파랑, 노랑 등의 컬러로 토양 위에서 눈에 잘 띄어 파종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세균 등에 대한 방어력을 갖춰 더 높은 발아율을 가진다. 게다가 더기반의 에코 프렌들리 코팅제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코팅제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 많이 다루지는 소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더 중요시될 것이기에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 영업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나 바이엘 등 글로벌 종자 기업과도 이러한 코팅제와 관련해서 접점이 생기고 있고요.”

조찬구 부장이 말한 친환경이라는 목표는 더기반의 근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화학은 사람을 향한 과학’이라는 철학으로 걸어온 NOROO의 화학 산업 외길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종자 산업으로 나아온 더기반은 친환경 코팅이라는 화학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사람과 자연에게 더 이롭고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내는 것이다.





권성하 주임이 속한 검사팀에서는 발아와 순도, 병리의 세 가지 기본 검사를 실시한다. “얼마나 싹이 잘 트는지, 원하는 형질이 얼마나 잘 발현되는지, 병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규정에 의거해 판매 여부를 결정하죠.”
 마지막은 종자 가공 출고 담당인 방수영 차장의 차례이다. “다른 공산품과 달리 한 번 출고되어 뿌리를 내린 종자는 수확 시점이 되어야 문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기에 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이트로 영업에서 원하는 품질에 부합하는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출고합니다.”



가공으로 단단하게, 튼튼하게

이러한 가공과 판매를 위해 종자가공센터는 앞에서 말했듯이 대량 생산과 검사 및 가공, 포장 등의 생산 플로우를 거친다.

“먼저 생산기획팀은 종자가 가장 잘 생산될 수 있는 지역과 조건을 찾아 수탁 생산사를 정해 종자 생산을 진행합니다.” 생산기획팀 김혁준 대리의 말을 받아 가공팀의 박주성 차장이 다음 단계인 종자 정선 및 가공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게 생산된 종자가 가공센터에 들어오면 검사를 위한 샘플을 검사팀에 보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물리적, 화학적 선별 과정을 통해 양질의 종자만 가공, 분류해 두지요. 그리고 출고 직전 코팅 작업을 해서 포장합니다.”



방수영 차장, 권성하 주임, 박주성 차장, 김혁준 대리 등 가공센터의 모든 직원과 조찬구 부장은 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생산 과정에 임한다. “더기반에서 연구 개발된 종자가 참외로, 수박으로, 토마토로 키워져 마트에서 만났을 때 반가움과 뿌듯함이 큼니다. 그렇게 키워내는 시간과 노력을 알기에 상품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종자를 잘 가공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로 종자와 함께 사람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연구하고 개발해 온 종자의 가공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켜낸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종자가공센터. 그들의 기술로 한 겹, 책임감으로 한 겹, 자부심으로 또 한 겹 싸여 더 단단해진 더기반의 종자는 전국 곳곳, 해외 곳곳에서 무궁한 가치로 자라나고 있다.



철저히 엄선하고 공들여 가공한다

더기반의 안성연구소 내에 위치한 종자가공센터는 더 좋은 종자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종자를 선별, 검사와 가공을 거쳐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창고에서 나와 포장실에서 배송 준비를 마치기까지 단계마다 거듭되는 검수로 철저히 엄선되고 세밀하게 가공된 더기반의 종자는 더 큰 부가가치로 농가의 수입을 올리고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다.

기후 위기와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요즘, 종자 산업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종자 산업이 지닌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에 주목도 또한 올라가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62조 5,906억 원

에 달하며 연평균 4.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정부는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키우고 수출 규모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종자 가공에 대한 플랜도 포함되었다.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장려 정책에 따라 더기반은 국내 생산 채종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안성 더기반에 위치한 종자가공센터에는 1년 365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 일반 건물 3개 층 높이에 달하는 이곳의 선반에는 국내외에서 대량 생산된 종자들이 조용히 숨 쉬며 대기 중이다. 그 옆의 하우스에서는 샘플링한 종자들이 새싹을 내고 열심히 초록의 키를 키운다. 발아와 생육의 정도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다시 종자가공센터로 돌아와 3층의 검사실을 들여다보면 꼼꼼한 병리 검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종자가 병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 위험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종자는 1층 가공실에서 다양한 선별과 가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생산된 종자에서 비립종자, 기형종자, 기타 이물질 제거 후 종자는 비중별로 분리하는 비중정선기, 가벼운 종자를 선별하는 풍압정선기, 종자를 크기별로 구분하는 립도분리기, 카메라로 종자의 다양한 색상을 식별해 외관의 균일도를 향상하고 파종을 돕는 색채선별기 등을 거쳐 양질의 종자만 엄선된다.

이외에 종자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건열소독기와 TSP 처리기, 색상별 코팅액과 살균제를 혼합해 종자를 코팅하는 종자코팅기,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대용량 회전체 드럼을 이용해 종자의 발아를 개선하는 프라이밍 등으로 더기반의 종자는 부가가치를 더하고 꼼꼼한 개수(開數)와 검수, 포장을 통해 상품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엄선되어 코팅과 프라이밍 등 가공을 한 종자는 파종과 발아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건강한 생육을 돕기에 가공 전의

종자에 비해 10배 이상 가격의 차이가 난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의 10%를 차지하는 종자 가공 처리 시장 규모 속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매우 미미하지만 정부의 연구 및 투자 계획과 함께 앞으로 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식 설비와 숙련된 연구원, 그리고 무엇보다 종자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더기반은 그 속도와 규모를 높이고 친환경 환경을 더하여 종자의 가치와 함께 자연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CULTURE GALLERY

서서히 저무는 한 해를 준비하게끔 하는 가을,
하늘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가을에는 노을맛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NOROO의 사운드와 함께한다면 더욱이 완벽한 저녁이 될 거예요.

영감과 위로를 주는 Sound of Color

영화나 드라마에서 OST는 이야기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우리의 일상도 음악으로 무드가 바뀌곤 한다. 음악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나만의 드라마로 만들고, 힘든 일도 보다 수월히 흘러보내게 할 수 있다. 마음에 다가서는 컬러의 힘에 음악을 곁들인 NOROO Playlist와 <컬러 사운드>로 일상을 산뜻하게 채워보자.



SCAN ME

컬러 영감이 필요할 땐 NOROO Playlist

오후 세 시, 메일함의 숫자가 쌓이고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자료들이 책상을 뒤덮는 시간. 머릿속은 수많은 업무가 영커 뒤죽박죽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지로 뽑아내야 하는 괴로운 오후, 진한 커피 한 잔으로도 좀처럼 개운해지지 않는 이 시간에는 신선한 환기가 간절하다. 이럴 땐 귀를 통해 뇌에 부드러운 바람을 잠시 불어 넣어 주자. <페인트 잇수다>가 준비한 '컬러 영감을 샘솟게 하는 플레이리스트'가 그 바람이 되어줄 것이다.

지난여름, 스튜디오 남산과 함께 노루 플레이리스트를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공개한 <페인트 잇수다>는 제2회 <프리즈 서울>의 개최를 맞이해 '컬러 영감을 샘솟게 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업로드했다. 이번에도 스튜디오 남산과 함께한 일명 '노플리'는 태국의 듀오 HYBS의 팝/R&B 선율이 담긴 <RIDE>, 재즈 뮤지션 Bong Peñera의 1970년대 음악인 <Samba For Luisa>, 일렉트로니카 밴드 Poolside의 <Harvest Moon>, 싱어송라이터 백예린의 <Popo>

등 장르를 넘나드는 17개의 곡으로 상쾌한 충전의 시간을 준다. 저녁노을이 깔린 바닷가에서 맨발로 가벼운 춤을 추는 듯한, 화려한 불빛이 내려다보이는 루프탑에서 나른해지는 듯한 환상을 주는 이 음악들은 손에 든 믹스 커피를 한 잔의 칵테일로 만드는 마법을 발휘하며 듣는 이를 어딘가 먼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그렇게 노플리와 다녀온 여행은 그 후의 시간을 신선하게 바꾼다. 음악을 통해 펼쳐진 머릿속 풍경들은 특히나 영감에 생생한 컬러를 덧칠하니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노플리는 분명 좋은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어줄 것이다. 음악으로 말랑해진 뇌세포 속에서 참신한 생각들이 튀어나올 테니 말이다.

<프리즈 서울> 개최와 함께 소개된 플레이리스트인 만큼, 미술 작품과 함께 즐겨도 좋은 음악들이니 전시 나들이를 갈 때도 컷가의 바람, 노플리를 준비해 보자.



SCAN ME

위로를 전하는 정물과 소리 <컬러 사운드> OBJECT

가끔은 무생물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싶은 그런 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제 자리에, 덤덤히, 담담히 있고 싶은 그런 때 말이다. 여기 그런 나를 위로해 주는 영상이 있다. <페인트 잇수다>의 Satisfying ASMR인 <컬러 사운드>의 'Object' 편이다.

많은 피아노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사운드 속 영상은 하얀 정물의 세계이다. 둥근 항아리, 넓은 수반, 각진 화병 등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빛의 변화 속에서 가만히 존재하는 정물에 가 닿는 것은 페인트의 컬러들이다. 피아노 건반 소리에 섞여 똑똑 떨어지는 NR07-002 vintage coral, NR07-045 urban blue는 마음에 패인 골을 어루만지는 듯 화병 위로 부드럽게 흘러 내리고, 슬픈 기억으로 가득한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NR07-019 lustrous brown은 쓱쓱 소리를 내며 붓으로 페인팅된다. NR07-034 the blue의 파랑이 흰 정물 위를 쓸고 지나가는 화면은 복잡한 생각들에 선을 그어 정리해 주고 스프레이로 부드럽게 뿌려지는 NR07-003 mineral orange는 따뜻한 기운을 스미게 한다. NR07-040 camellia leaf의 그린 컬러로 서서히 채워진 화병을 마지막으로 <컬러 사운드>의 정물화는 처음과 다른 컬러들로 완성되었다. <컬러 사운드>를 감상한 마음 역시 처음과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영상 속의 컬러들은 글로벌 컬러 트렌드북 『COVER ALL』 Vol.07의 'Object'편 컬러이다.



가을엔 노을 하루 끝의 하늘

하늘이 유난히 예뻐지는 계절, 가을에는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하늘이 온갖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새벽하늘은 투명한 물빛으로 맑은 바다를, 낮의 하늘은 가슴이 뻥 뚫리는 푸르름과 온갖 모양으로 변하는 구름을, 저녁의 하늘은 오렌지, 바이올렛, 핑크, 네이비 등 컬러의 향연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하늘을, 노을을, 가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김병준, 노을공원의 노을

한강을 적시는 노을

노을 하면 이곳을 빼뜨릴 수 없다. 이름부터 ‘노을’이 들어가는 서울 서쪽의 한강 노을공원이다. 탁 트인 잔디밭, 하늘을 덮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터, 한강과 연결된 산책로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공원은 저녁이면 하늘에서 한강으로 내려앉는 노을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 90년대까지 쓰레기 매립지였기에 높이 솟은 이 공원은, 덕분에 하늘과 가까워져 노을을 가까이, 한강을 멀리 내다보기 좋다. 노을공원에는 가족캠핑장과 파크골프장이 운영되어 예약을 통해 캠핑과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가을밤, 서울 한복판에서 캠핑하며 노을 위로 떠오르는 별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꽤 오래 걸거나 맹꽁이열차를 이용해 올라가야 하는 노을공원이 망설여진다면 어디든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가자. 제각각 조명을 멋지게 장식해 놓은 다리들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기에 좋은 강변이 서울에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윤슬로 넘실넘실 다가오는 노을을 즐기기에 한강 둔치가 제격이지만 전망 심터로 지어진 다리 위 카페들도 너른 시야로 노을의 포만감을 준다. 동작대교에 위치해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구름카페와 노을카페도 기억해 두자.



남산공원 백범광장 성곽길

도심을 물들이는 석양

아무래도 높이가 높을수록 노을 가득한 하늘을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으뜸가는 곳은 롯데월드타워의 서울스카이전망대일 터. 그러나 입장료 없이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해 노을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등산이라 할 만큼 오르는 길이 꽤 가파르지만 남한산성 서문 전망대는 그 힘듦을 상쇄하는 멋진 뷰를 보여준다. 서울 잠실 일대, 위압감을 주는 롯데월드타워와 그 너머의 남산과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노을에 물들면서 자연 속으로 스미는 듯한 도시의 풍경을 선사한다. 물론 반짝이는 야경은 다시금 인공의 화려함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말이다.

서울에서는 남산공원 백범광장의 성곽길을 추천한다. 공원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걷는 거리를 줄일 수 있고 도심 한가운데인데 의외로 인파가 많지 않아 호젓하다. 잘 정돈된 조경과 단풍이 든 나무들, 멋진 배경이 되어주는 역사와 운치 있는 성곽까지, 크지 않은 공원이지만 산책하거나 돛자리를 깔고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울의 대표적 건물들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노을은 도시의 분주함을 가라앉히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바다로 가라앉는 낙조

해는 서쪽으로 저무니까, 역시나 낙조는 서쪽이 제격이다. 서해의 많은 해변들이 낙조로 유명인데, 그중 충남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그리고 늦여름에 만개하는 맥문동까지 즐길 수 있다. 주차장에서 스카이워크까지 약 800미터에 달하는 넓은 소나무 숲에 피어난 보라색 맥문동 위로 내려앉는 진홍색 노을은 장관이라 할 수 있다. 근처에 유료 야영장과 어린이 놀이터, 해변 산책로가 있어 가족과 함께하기 좋다.

충남 홍성 12경 중 2경에 속한다는 남당항의 노을전망대도 멋진 낙조를 구경할 수 있는 명소이다. 해변에서 바다로 쪽 뻗은 전망대 하나 외엔 별다른 시설이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낙조의 쓸쓸함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당항은 대하축제로도 유명하니 시기를 잘 맞추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근처의 남당항 해양공원에는 너른 음악분수대와 트릭아트존, 그물 놀이시설인 네트어드벤처 등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즐거운 나들이가 될 것이다.



붉게 물드는 섬의 가장자리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제주는 노을도 아름답다. 특히 서해안 쪽 신창해안도로는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소문난 길이다. 그중 신창풍차해안도로는 인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이기도 한 곳으로 바다 위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들이 이국적 풍경을 자아낸다. 차를 세우고 걸거나 사진을 찍고 싶다면 싱계물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자. 공원은 분명 싱계물인데 네이비 지도에는 ‘싱계물’로 입력되어 있으니 유의할 것. 바다 위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물이 빠질 즈음엔 바닷속 조형물과 기암괴석이 드러나면서 볼거리가 더 많아진다. 밀물일 때 다리가 물에 찰랑이는 것도 묘미.

제주 동쪽에서는 오저여가 일명 ‘일몰맛집’이다. 바다로 툄 튀어나온 해안 끝에서 바다로 잠겨 드는 해를 볼 수 있는 이곳은 해안 규모가 소박하고도 여유로워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좋을 것이다. 동쪽이라 일출 보기에도 좋으니 이곳에 숙소를 정해놓는 것은 어떨까. 참고로 돌고래도 자주 출몰한다고 한다. 이외에 하귀애월해안도로의 구엄포구, 오름 중 문도지오름 등도 노을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명소이다.



NOROO PEOPLE

NOROO는 끊임없는 연구로 첨단 기술을 완성하고
다채로운 컬러로 예술의 장에 함께합니다.
NOROO는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이루어 뉘으로써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며 함께하는 우리

2023 신규 입사자 역량 향상 과정

2023 신규 입사자 역량 향상 과정이 경기도 화성의 YBM 연수원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3년 2월 이후의 신규 입사자 37명이 참가한 이번 과정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업무 수행 및 소통과 협업의 기술을 익히고 NOROO 그룹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NOROO인으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통하는 우리

“자, 대리님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신규입사자 역량 향상 과정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전, ‘커뮤니케이션 롤플레잉’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제시된 첫 번째 상황은 ‘대리님과의 출장’. 이 상황을 받아 든 조원들은 고심하고 상상하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며 대본을 만들고 이윽고 대리사와 사원의 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발표했다.

“대리님! 저랑 말투가 비슷하신데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출장지 근처 맛집을 검색해 왔습니다!”라며 기합이 바짝 든 사원의 연기를 능청스레 하는가 하면 운전을 맡은 대리 역할은 “응, 선임 말 잘 듣고, 대리점 사장님이란 잘 지내고...”라고 조언을 하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시늉을 하는 등 재치 있는 연기로 보는 이들을 일명 ‘뺑 터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극은 질문과 대화, 나아가 관계에 대한 강의로 연결되었다. 강사는 상황극 속 질문들에 대해 “말투와 연고지 등 공통점을 찾는 건 대화를 여는 열쇠죠. 좋은 날씨 등 긍정적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휴가지 질문은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용이합니다.”라고 칭찬하며 적극적 소통의 3요소인 ‘질문’과 ‘경청’, ‘공감’의 방법들을 설명했다. 5일간 이어진 교육의 마지막 날이라 피곤할 법도 한데, 참가자들은 반짝이는 눈과 활기찬 대답으로 ‘경청’하고 ‘공감’했다.



COLORFUL NOROO인

“동기를 만나고 의리도 다지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노루페인트 시장운영팀의 정윤겸 주임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교육 중 잠깐 짬을 내어 만난 신규 입사자들은 한결같이 즐거운 표정이었다.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NOROO 그룹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규 입사자 역량 향상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참가자들이 모두 합숙하는 형태로 4박 5일간 진행되면서 동기애를 보다 진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중 많은 참가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꼽은 것은 4일 차의 두들링 시간이었다. “서로 다른 컬러로 빼곡히 채운 그림이 모여서 ‘Bright Color, Smart World’로 완성된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라는 정윤겸 주임 외에 노루페인트 구매본부 1팀의 이다연 주임, 노루코일코팅 기술 2팀의 최현조 주임 역시 함께하면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두들링을 이야기했다.



경력자라면 매우 일상적으로 쓰게 되는 메일과 보고서의 작성법도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유용한 팁이 되었다. 노루오토코팅 해외팀 박재영 주임은 이러한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보드 게임 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완점을 찾게 된 것도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교육 과정에 참가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위해 브이로그용 영상과 사진을 계속 촬영했던 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전재원 주임은 “촬영을 위해 동기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NOROO 그룹이라는 큰 조직 안에 속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동기 사랑, NOROO 사랑

이번 교육 참가자들의 소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동기애’였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색하고,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 긴장되고, 주변에 동기가 없어서 외롭기도 했던 신규 입사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험을 나누며 유대감이라는 토대를 튼튼히 쌓았으며, 조직의 스케일과 체계, 문화를 파악하고 NOROO인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또한 가졌다. 이는 사내 강사진의 NOROO 그룹 소개와 상생협력 노사 문화 등 사내 강사진이 직접 준비하고 강의한 1일 차 교육 프로그램부터 이후 이어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였다.

NOROO인의 성장이 곧 NOROO의 성장이라는 철학으로 준비된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NOROO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연결 고리, 즉 ‘동기’가 되어 주었다. 그 단단한 고리의 연결로 NOROO는 튼튼한 미래를 계속 지어갈 것이다.



**노루페인트 시장운영팀
정윤겸 주임**

“이번 교육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소통과 협력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정말 알찬 4박 5일이었습니다.”



**노루페인트 구매본부 1팀
이다연 주임**

“교육 시간 외에도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한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루코일코팅 기술 2팀
최현조 주임**

“여기 와서 동기들을 만나니 반갑고 든든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최적의 해결법을 찾아내었던 것이 뿌듯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노루오토코팅 해외팀
박재영 주임**

“함께 활동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몰랐던 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업무적 역량을 더 키워서 제 몫을 해내는 NOROO인이 되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전재원 주임**

“저는 디지털마케팅 팀이라는 직무에 계신 분들과도 소통할 일이 많은 텐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는 데 좀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효율 친환경 UV-Q로 세계 최초를 이루다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 도장 시스템 UV-Q

기존의 보수 도장 공정을 두 단계나 단축하여 효율을 올리고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동시에 도장의 품질은 더욱 우수하게 높인다. 더불어 VOCs 성분을 줄여 친환경성까지 잡는다. 이 놀라운 세 가지 특징점이 한 제품에 실제로, 세계 최초로 구현되었다. 바로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 도장 시스템 UV-Q이다.



도전 정신으로 이룬 '세계 최초'

노루페인트는 세계 최초로 UV 경화형 자동차 보수 도장 시스템인 UV-Q를 출시했다. 2022년 12월, 특허청 특허를 취득한 UV-Q는 퍼티와 서페이서의 두 가지 공정을 한 번에 커버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시스템으로 시장에서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획기적인 시스템의 시작은 어느 날의 저녁식사에서 시작되었다. 개발자인 하성욱 차장의 이야기이다.

“정비 공장의 고객분과 식사를 하다가 1K, 2K 서페이서의 단점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1K 서페이서는 건조 속도가 빠른 반면에 퍼티 자국이 올라오거나 접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2K 서페이서는 도막이 우수한 대신 건조가 1K의 4배인 한 시간 반이나 걸리니 바쁜 현장에선 적용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2K 서페이서만큼 우수한 도장 품질로, 1K보다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 UV 경화 방식을 궁리하게 되었죠.”

1K, 2K의 K는 독일어 'Komponent'의 앞 글자로 구성 성분을 의미한다. 구성 성분이 하나로, 희석제만 타서 바로 쓸 수 있는 1K와 달리 2K는 주제와 경화제 두 개로 이루어지기에 도막이 단단히 형성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었다. 하성욱 차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정비 공장은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것.



“차가 많이 들어오면 뭣하나요. 빨리 작업되어서 나가야 정비 공장도, 차주도, 보험사도 좋죠. 작업 효율을 위해 '퍼티와 서페이서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고 건조 시간을 1분 이내로, 도막 품질은 2K 서페이서보다 우수하게!'를 개발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도 고려했죠. 희석제로 사용되는 신나 성분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s로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어요. 이 VOCs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수성화인데 퍼티와 서페이서는 수성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UV 경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UV-Q 시스템은 전용 도료인 'UV-Q 더블액션 Zero VOC'와 자외선 조사기 'UV-Q 듀얼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UV를 이용하면 건조성도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VOCs도 없앨 수 있니까요. 마침 LED 기술이 발전해 수작업에도 UV 조사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예 'VOCs를 없애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자!' 하여 zero VOCs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개발에 매진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예측 불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함을, 길 없는 길의 개척을 뜻했다. “사소한 실험 하나하나가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손으로 세계 최초를 만들자는 도전 정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바꾸는 UV-Q 시스템

목표로 했던 1분의 건조 시간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다. “퍼티에 30분, 서페이서에 20분 걸리던 게 각 1분씩이면 끝나요. 하도부터 마지막 크리어까지 120분 정도 걸리던 게 이 시스템에선 60분이면 끝납니다. 간혹 기존에 엉망으로 재도장된 차량을 재작업할 때는 서페이서를 뿌리면 주름이 일어나는데 이 시스템은 고흡분 100%라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도막이 매우 견고해서 여러 번 보수된 차량도 문제없이 보수하죠. 자외선을 받지 않으면 경화되지 않으니 보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폐기물도 없습니다.”

작업 결과는 물론, 효율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출시 전 6개월간 여러 정비공장에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평균적으로 150% 정도 작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월 100대 정도 하던 곳에서는 150대 정도, 200대 정도 하던 곳은 300대 정도 차량 출고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저희가 제품을 시연하면 모두가 놀라세요. UV 조사 30초 후에 바로 후속 작업이 되는 게 신기하고, 또 하도와 중도를 다 커버하는 점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공식 출시 전 체험해 보고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분들, UV-Q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작업이 안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피드백에 개발자로서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해 온 하성욱 차장은 앞으로 국내 자동차 보수용 시장은 UV-Q 시스템이 탄생하기 전과 후로 나뉠 거라며 확신을 전했다. “시간과 체력, 페인트도 덜 쓰고, 결과물은 더 좋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노루페인트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거래선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미지의 내일을 또 꿈꾼다. “이제 또 2년 전처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라는 하성욱 차장과 노루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가 끝없이 개척해 갈 앞날을 응원한다.



NOROO의 컬러로 만나는 FRIEZE SEOUL

FRIEZE SEOUL with NOR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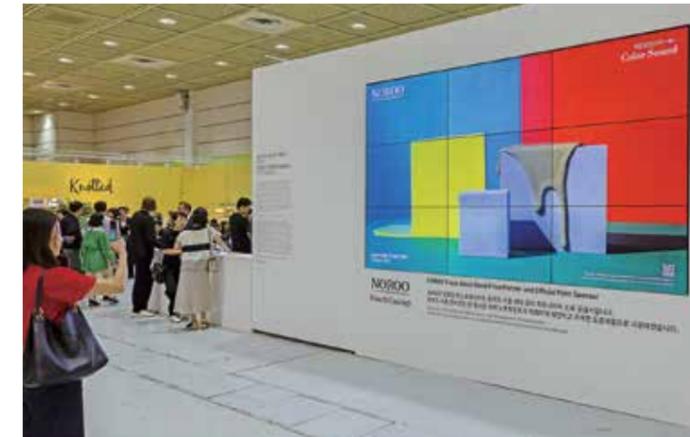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프리즈 서울》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 120여 개의 우수 갤러리가 선보이는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나기 위해 권위 있는 글로벌 미술계 인사들과 이류한 VIP 수집가들은 물론, BTS 등 문화 예술계 셀러브리티를 포함해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NOROO는 작년에 이어 《프리즈 서울》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파인 아트를 위한 공간을 완벽히 커버했다.

미디어 아트, 〈컬러 사운드〉

입구를 들어서면 알렉스 카츠의 대형 작품이 걸려 있고, 이리저리 발길을 옮기다 보면 파블로 피카소의 드로잉과 제프 쿤스의 조각, 데미안 허스트의 나비 날개 작품을 만나게 되는 곳, 고개를 돌리면 사갈의 초현실주의 회화, 유영국의 단색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설치미술을 마주하게 되는 곳. 손을 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고색창연한 14세기의 고서부터 어제 막 물감이 뿌려진 듯 활력이 넘치는 초현대미술이 한자리에 존재하는 곳. 이곳이 바로 《프리즈 서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엑스에서 같은 규모로 열린 《프리즈 서울》 입구에는 긴 줄이 섰다.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을 1시간 단위로 분산 입장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에 아랑곳없이 많은 관람객이 프리즈 서울을 찾았으며 그 덕에 행사장 내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를 연발하고 어깨를 부딪쳐 가며 관람객들은 마치 풍성한 연회와 만찬을 즐기듯 세계의 걸작이 가진 위엄과 떠오르는 신예 작가들의 화제작이 내뿜는 새로운 에너지를 한껏 감상하고 맛보았다. 혼잡함 속에서도 작품을 자신의 사진첩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인파의 찰칵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렌즈들 속에는 NOROO의 〈컬러 사운드〉도 담겼다.

2년 연속 공식 파트너로 《프리즈 서울》에 참가한 NOROO 그룹은 특수 제작한 미디어월을 전시장에 설치하고 시그니처 콘텐츠인 〈컬러 사운드〉 영상을 상영했다. 걸출한 예술 작품들 속에서 〈컬러 사운드〉 또한 미디어 아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람객에게 페인트가 가진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전하고 그 신선한 변용을 감각케 했다.



컬러, 예술을 완성하다

《프리즈 서울》에서 NOROO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컬러 사운드> 미디어 월뿐만이 아니다. 《프리즈 서울》의 도로 공급사인 NOROO 그룹은 전시장 모든 곳에서 작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존재했다.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 갤러리들은 노루서울 디자인스튜디오(NSDS)에서 선정한 컬러를 기반으로 노루페인트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독점 공급한 전시 특화 비스포크(Bespoke) 도료로 최적화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었다. 작품과 어울리는 유니크한 컬러를 사용한 다수의 갤러리는 특히나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자본주의 속 개인의 역사와 세상의 관계, 지키고 싶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박론디 작가의 회화는 서울의 화이트 노이즈 갤러리가 마련한 핑크와 오렌지 컬러의 전시장 안에서 개인의 감정과 친밀함이라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전달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제시카 실버맨 갤러리는 부스를 진한 녹색으로 채워 우디드 오셀로의 회화와 조각 작품이 가진 생명력을 강조했다. 정글을 연상케 하는 녹색 컬러는 작품에 숨결을 불어 넣고 그 동세에 어울리는 공기를 조성했다.

캡슐 상하이 갤러리가 선보인 메블레나 립의 독창적인 판화 조각 작업은 오묘한 라벤더 컬러 위에서 신비로움이 배가되었다. 캡슐 상하이 대표는 멀리서는 핑크, 가까이에서는 라벤더로 보이는 이 컬러가 작품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만족을 표했다. 이외에도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와 영국 런던에 소재한 갤러리 1957은 부드러운 핑크 위에 아프리카 작가의 작품을 걸었고, 서울의 갤러리 바톤은 부스 전체를 강렬한 파랑으로 꾸미고 푸른 색조의 작품들을 배치해 부스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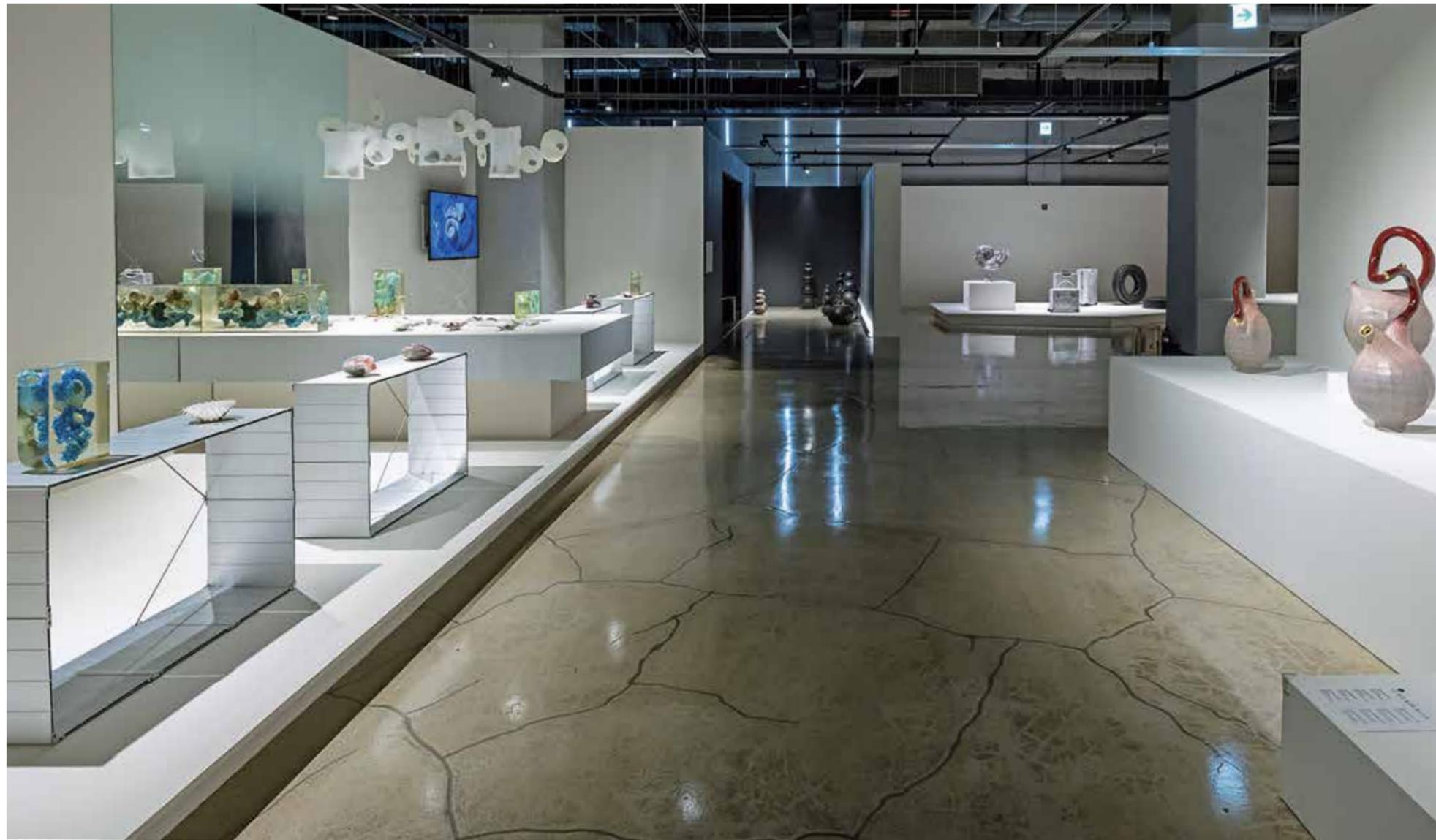


이렇듯 NOROO의 컬러는 《프리즈 서울》을, 예술의 현장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프리즈 서울》 도로 독점 공급과 함께 NOROO 그룹은 최우수 갤러리에 수여하는 'Focus Asia Stand Prize' 상의 시상에도 참여하여 축하와 함께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NOROO 그룹의 의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NOROO 그룹은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컬러와 페인트의 정서적 가치를 보다 넓게 전파할 것이다. 《프리즈 서울》은 그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되었다.

색조 위에 펼쳐진 공예의 향연

청주공예비엔날레 with NOROO PAINT

도자, 목칠, 섬유, 금속, 유리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국제 종합 예술 행사 《2023청주공예비엔날레》가 13회를 맞이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다. ‘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획된 이번 청주공예비엔날레에는 노루페인트가 함께해 전시의 다채로움을 빛냈다.



청주, 세계 공예문화를 잇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장 청주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직지>와 공예를 연결하고, 지역성에 국제성을 결합해 세계 공예문화를 선도한다는 방향성을 토대로 1999년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주제는 ‘사물의 지도_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자연과 노동과 예술적 생선이 하나로 일치된 공예의 새로운 창의성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전시는 ‘대지와 호흡하며 함께하는 사물들’, ‘인간-자연-사물을 연결하는 문화적 유전자와 맥락들’, ‘손, 도구, 기계,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제작 방식과 기술들’ 등 다섯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공예가 어떻게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는지를 조명한다. 이와 함께 초대국가전에서는 스페인의 공예와 장인 정신을 선보이고,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는 국내외 공예 작가들의 기량을 한자리에 펼쳐냈다. 전시장인 문화제조창은 과거 연초제조창이었던 곳으로, 청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2011년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해 왔다. 특유의 인더스트리얼한 감성을 가진 이곳은 NOROO의 감싸듯 부드러운 WT 1040 Oxford Beige 컬러를 바탕으로 DB 9030 Flat Granite 컬러로 각 섹션의 변화를 전달하면서 아늑하고 편안한 흐름의 전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몇몇 전시 공간에는 차별화된 배경 컬러가 쓰여 작품을 더욱 돋보이도록 했다.



공예 속 NOROO의 컬러와 기술

청주공예비엔날레 본 전시의 첫 번째 테마인 '대지와 호흡하며 함께하는 사물들'은 밝은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어두운 길목을 따라 자연을 형상화한 여러 작품을 만나게끔 변화를 준 컬러가 감상의 몰입감을 더한다. 특히 모퉁이를 돌아 만나게 되는 다카하시 하루키의 <땅을 타고 흐르는 물의 정원>은 도자기로 하나하나 빛은 줄기와 꽃이 물 위의 파문처럼 소용돌이치며 고요하고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전하는데, 땅과 물, 념쿨의 물성과 함께 정신적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DB 9043A Moon Shadow의 깊은 그레이가 쓰였다.

유년시절의 풍성한 기억과 유희적 감각이 담긴 서도식의 옷칠 황동 작품 <감·甘·感>을 감싸 안은 NU 3128 Snowy Evergreen은 감이 익어가는 가을날의 싸한 바람을 전해 감상을 피부로 와 닿게 하고, 유정혜 작가의 <숲+연가>의 배경으로 쓰인 DB 9058A Night Indigo는 나무의 뿌리로도, 열매로도, 새의 둥지로도 보이는 오묘하고도 생명력 가득한 작품들이 더욱 신비롭게 보이도록 연출을 도왔다.



특히 세 번째 섹션인 '손, 도구, 기계,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제작 방식과 기술들'의 섹션에서는 배경이 아닌, 작품에서 NOROO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의 유한함과 도자 공예의 무한성을 나타낸 윤성호 작가의 <Fruitful remnants>, <impulse>가 그것으로, NOROO의 P3HP 안에 고려 및 조선시대 도편을 담은 <Fruitful remnants>는 전시 기간에 점점 분해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퍼포먼스 연출까지 기획되었으며, <impulse>의 경우, 신라시대의 도편을 삽입한 블록에 NOROO의 P3HP를 사용해 인류가 도자를 만들고 사용하고 파손하는 개념을 전달한다. 윤성호 작가는 NOROO의 P3HP의 생분해성 및 물성이 월등히 높아 사용하게 되었다며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자연계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P3HP가 인간을 닮았다고 평했다.



삶과 기술, 예술의 전시

이외에도 스페인 초대국가전의 입구에서는 W 8019 Crime Scene이 스페인의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만끽케 하는 전시의 시작을 화려하게 선언했으며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는 산뜻한 민트 컬러 MD 5156A Acid Soda와 밀크 초콜릿 같은 MD 5062 Amber Brown이 조화를 이뤄 공예의 지평 위에서 각자의 기량을 펼친 국내외 공예 작가들의 다양성을 보조해 주었다.

이렇듯 역사를 지닌 전시장, 세계의 작가들, 수많은 작품이 어우러진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NOROO의 페인트는 전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조율해 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황혜림 큐레이터는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컬러링을 통해 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간의 삶과 기술, 예술이 응축되는 공예적 속성을 지닌 페인트이기에 NOROO의 컬러는 그 빛을 공예 작품에 오롯이 비취 주었을 것이다. 이로써 13번째의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하나의 주제, 두 개의 무대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3 <GRIMENTO> with NOROO PAINT

고통스러운 회색으로 점철되는 순간들은 어떻게 극복되고, 치유되는 것일까.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 23(Sync Next 23)>의 참여작인 현대무용 <그리멘토(GRIMENTO)>는 회백색 무대 위 몸짓으로 학교 폭력의 아픔과 회복, 위로를 이야기하고 스트리트 아트 디렉터 한해동 작가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고통에서 치유로, 무채색에서 채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주제, 두 개의 무대에 노루페인트가 함께했다.



컬러의 무대,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3>이 열리던 늦은 여름 어느 오후, 광화문 광장 단상 위에 흰 가벽이 세워졌다. 그 앞에는 노루페인트의 팬톤페인트 통이 착착 놓였다. 한해동 작가가 큰 붓을 들고 가벽 앞에 서자 주변 공기에는 살짝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윽고 그가 팔을 휘둘러 획을 긋기 시작했다. 획 하나에 허공을 가르는 팔이, 붓질 한 번에 뛰어오르는 다리가 벽에서 튀어나오듯 그려졌다. 광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했다. 눈으로 보기 아쉬워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이들도 많았다. 무슨 퍼포먼스인지 궁금해진 사람들은 단상 옆에 놓인 안내 문구를 유심히 읽기도 했다. 여기엔 “GRIMENTO X NOROO 드로잉 퍼포먼스 by 한해동”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대형 벽화 작업으로 유명한 한해동 작가가 펼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는 그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 앞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림을 그리는 한해동 작가의 동작 하나하나, 선과 면이 채워지는 일분일초, 그리고 이 과정을 감상하는 시선과 감탄의 목소리가 섞이며 자아내는 열띤 분위기는 완성도 높은 하나의 공연이었다.

이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는 노루페인트가 세종문화회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싱크 넥스트 23>의 공연 중 하나인 현대무용 <그리멘토>의 오픈에 앞서 준비된 것으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그리멘토>의 역동적 몸짓을 거대한 화폭에 옮겨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공연이 전할 에너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한해동 작가는 <그리멘토>가 학교 폭력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 인상을 전하기 위해 강렬한 이미지를 넣었다고 전했다. 특히 주된 테마인 여섯 개의 회색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무채색에서 고채도로 넘어가는 지점의 색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리멘토>의 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손동작과 발동작, 몸짓 위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악이나 춤처럼 평면 회화도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라고 전한 작가의 희망대로 이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그림 속 몸짓과 작가의 몸짓, 그리고 팬톤페인트의 컬러를 통해 작품을 세 배로 즐겼을 것이다.



회색의 무대, 현대무용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로 개막 전에 대중에게 생생히 전달된 <그리멘토>는 국내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정구호가 연출하고 세계적인 무용단 아크람칸 댄스 컴퍼니 출신의 안무가 김성훈이 안무를 맡아 선보인 현대무용이다. 불어로 회색을 뜻하는 'Gri'에 라틴어로 기억, 순간을 뜻하는 'Memento'를 더해 '회색의 순간들'로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은 책상과 걸상 그리고 16명의 학생으로 연출한 회백색의 무대 위에서 학교 폭력이 평범한 교실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그 치유의 과정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숨 막힐 듯한 고밀도의 춤사위로 보여준다. 갈등, 차별, 폭행, 미움, 치유 등의 의미를 가진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는 각기 명도와 채도가 다른 여섯 종류의 회색이 쓰였는데, 특히 노루페인트로 페인팅된 책걸상은 주변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일 듯한 건조한 회색으로 작품의 흡입력을 높였다.



이유 없는 분노와 차별의 무의미함을 곱씹게 하는 이 작품은 노루페인트의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다. 노루페인트는 국내 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대중에게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싱크 넥스트 23>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해동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와 <그리멘토>를 후원하였으며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세종문화회관과 연계된 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네모난 회백색의 교실에서 탁 트인 광장의 컬러풀한 드로잉으로, 무용과 드로잉을 아우르는 자유로움으로, 노루페인트는 경계 없는 문화의 세계에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있다.

컬러 속에 머무른다

포포인츠 바이 웨라톤 조선, 서울 명동 with NOROO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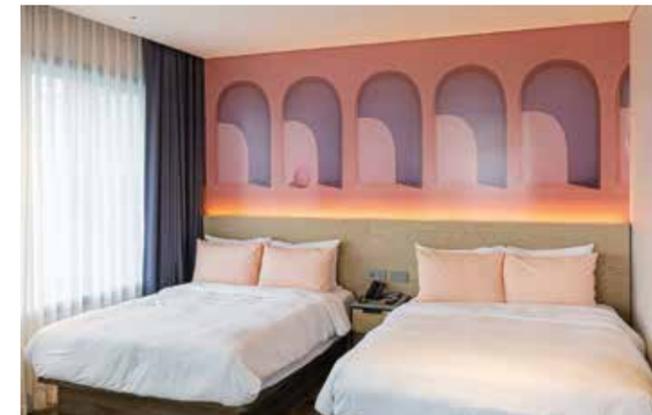
눕고, 뒹굴고, 앉고, 먹고, 마시고, 잠들고, 깨고, 바라본다. '쉬다'라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행동들이 들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만의 '방'에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는 것이 호텔이다. 여기에 컬러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쉽고 여행, 그리고 『COVER ALL』 컬러의 특별함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노루페인트가 마련했다. 포포인츠 바이 웨라톤 조선, 서울 명동에 준비된 'COLORFUL STAY'이다.



NOROO X FOUR POINTS

포포인츠 바이 웨라톤 명동의 탑층 프리미어룸의 한 객실. 문을 열자 큰 창을 통해 한가득 빛을 품은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그 빛 사이로 동실 떠오르는 풍선들은 새벽의 하늘 같기도, 스러진 노을이 남기고 간 보라색 저녁 하늘 같기도 한 오묘한 컬러로 보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건드린다. 눈을 돌려 바라본 베드 쪽에는

따스한 햇살을 받은 듯 분홍색과 청보라색으로 부드럽게 빛나는 아치와 그림자가 고요하고도 포근한 풍경을 만든다. 이 컬러 아래의 베드 위에서라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을 듯하다. 호텔 방에 이런 컬러와 장식이라니, 무슨 장치일까?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창문에 새겨진 'CLASSY SHADOW'와 'Color by NOROO'의 문구이다. 풍선 아래 놓인 'CLASSY SHADOW'의 페인트 통은 또 하나의 힌트를, 입구의 미니바 위에 놓인 'NOROO X FOUR POINTS' 안내는 이윽고 자세한 설명을 전한다. 이 방은 컬러 디자인 전문 연구소인 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NSDS)가 발간하는 컬러 트렌드 북 『COVER ALL』의 콘텐츠로 디자인된 객실이라는 것. 옆에 놓인 『COVER ALL』 책자를 펼치면 이 방의 무드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간된 『COVER ALL』 Vol. 07은 뉴욕의 Mue Studio와 협업하여 개발된 전용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콜라보레이션 객실 디자인 역시 이 콘텐츠가 적용되었으며 투숙객 증정용 엽서로도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투숙객에게는 미니 타이백 에코백이 증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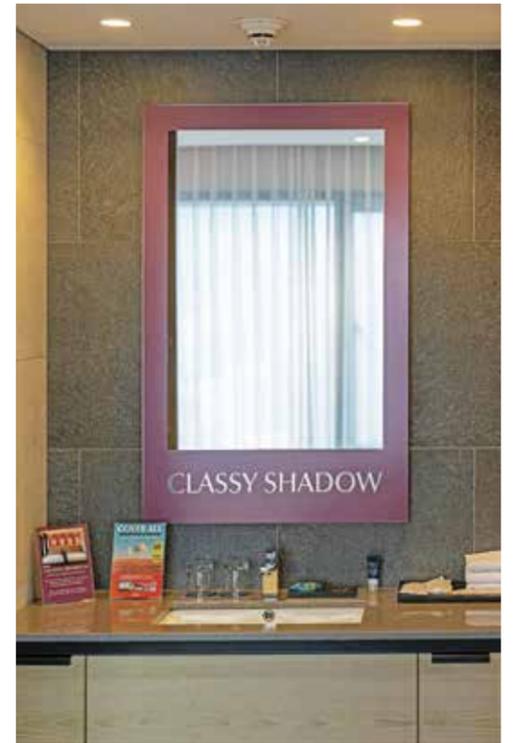
복도의 대형 창문에는 싱그러운 컬러의 튤립 그래픽을 적용해 통로에 산뜻한 분위기를 불어넣었고 4층 로비에는 『COVER ALL』 책자와 POP, 액자를 설치해 주목성을 높였다. 체크인, 체크아웃을 기다리며 『COVER ALL』을 읽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컬러, 머물며 감상하다

“콘텐츠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번 『COVER ALL』 Vol. 07의 키 컬러인 ‘CLASSY SHADOW’는 볼수록 빠져들면서 안락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북돋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호텔을 떠올리게 되었죠. 객실은 투숙객이 머무르면서 컬러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번 공간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을 진행한 노루홀딩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의 제갈은경 과장은 CLASSY SHADOW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었다. “특히 포포인트 바이 셰라톤 명동은 투숙객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우리 컬러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NOROO의 컬러와 컬러 트렌드북 『COVER ALL』을 알리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호텔 객실은 독특한 채널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간의 특성상 브랜드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객실은 단 하나, 그러나 투숙객들이 머물면서 느낀 감성과 남긴 사진은 SNS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나게 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로고 등으로 브랜드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컬러와 디자인을 통한 공간감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컬러의 힘을 경험하고, 저희 브랜드에 호기심과 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호캉스를 즐기는 이들이 주로 인증샷을 찍는 남산 뷰의 포토존 위치에 어울리는 풍선 모티브를 적용하고 베개 커버의 컬러를 벽면과 동일하게 연출한 것도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일련번호가 나란히 붙은 똑같은 방, 쾌적하게 획일화된 객실의 구조 속에서 컬러는 유일한 분위기를 만들어 투숙객에게 ‘나만의 공간’을 선물했다. 창문의 ‘CLASSY SHADOW’ 아래 적힌 문구,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 newer and unfamiliar color of emotion than this to add emotion of beauty and splendor to the dullness of modern technology.’가 새삼 강렬히 다가오는 건 이 공간에서 그 힘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공간이건 자신만의 아름답고 화려한, 새롭고 낯선 감성을 불어넣는 컬러의 힘 말이다. 이 공간 콜라보레이션은 10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이곳에서의 컬러 경험은 길게 이어져 『COVER ALL』로, 다른 컬러들로 번져갈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기획 중이라니 그 확산의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호캉스가 제격인 곳에서 <페인트 잇수다>도 파티를 연출해 촬영하였다. 긴 촬영 중에도 웃음 소리가 멈추지 않은 것 역시 컬러의 힘 덕분이라.



Mobility와 Art NOROO의 컬러로 만나다

BMW 내쇼날모터스, 서울옥션 블랙랏의 팝업 스토어 with NOROO PAINT

노루페인트는 BMW 공식 딜러사인 BMW 내쇼날모터스, 서울옥션 블랙랏과 함께 안성 스타필드 BMW 전시장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7월 한달간 운영했다. 노루페인트는 컬러 컨설팅으로 팝업 스토어에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특별 조색한 페인트로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지원해 'Color Your Joyful Moment'의 콘셉트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했다.

Color Your Joyful Moment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한지, 언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무엇에 감사하며 충족감을 느끼는지를 알고 삶의 순간 순간마다 즐거움을 찾아갈 때 우리는 다채로운 '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루페인트, BMW 내쇼날모터스, 서울옥션 블랙랏이 함께한 팝업 스토어는 'Color Your Joyful Moment'라는 주제로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즐거운 순간들을 나만의 색으로 표현하고 느끼기를 권한다. 이를 위해 노루페인트는 그레이와 바이올렛 사이의 차분함과 신비로움이 담긴 MD 6190과 내면으로의 탐색을 돕는 진중한 깊고 진한 바이올렛인 MD 6195를 선정하여 팝업 스토어의 퍼포먼스 존과 갤러리 존의 백월을 연출하고 같은 컬러의 페인트 드럼통을 테이블로 활용하여 이벤트 존도 구성하였다.



이 컬러들은 현장에서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펼칠 지희 작가의 화풍과 이번 팝업 스토어의 콘셉트인 '나의 개성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다.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NSDS)의 김승현 팀장은 마침 NSDS가 올해 내세운 키 컬러인 바이올렛이 팝업 스토어의 콘셉트와 매칭되어서 전체적 무드에 사용했으며 새로 제작된 컬러 차트 노루컬러가이드 2023 안에서 이와 걸맞는 컬러를 선택,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취향을 중시하는 요세 트렌드에서 컬러는 그러한 취향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수단입니다. 마감재로서의 페인트의 기능은 물론, 추구하는 분위기를 현장에 구현해 주는 컬러의 역할이 제 평가를 받고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가는 추세라 매우 반갑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NOROO가 선도해 왔다는 것이 뿌듯하고요."라며 자랑스러움을 내비쳤다. 그의 말처럼 페인트의 컬러는 분위기를 바꾸는 고도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BMW 내쇼날모터스 담당자 역시 같은 차량이라도 컬러에 따라 전달되는 감성이 굉장히 달라지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의 <컬러 사운드> 등 다양한 컬러 콘텐츠로 신선한 시도를 해온 노루페인트이기에 저희의 아이덴티티 또한 컬러로 잘 전달해주시리라 기대되어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20% 만족입니다!"라고 화답했다.



HAPPY, EXCITED,
THANKFUL

노루페인트로 준비된 지희 작가의 퍼포먼스는 컬러에 역동성을 더하는 이벤트였다. 지희 작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자신만의 기호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의 메인 컬러를 고려하여 작가가 직접 선정한 PANTONE 14-3905 Lavender Blue, 12-2907 Pink Marshmallow, 19-4029 Navy Peony, 17-3923 Colony Blue 등 팬톤 페인트를 이용해 PROUD, THANKFUL, HAPPY, EXCITED 등을 대담하게 써 내려간 페인팅 퍼포먼스는 텍스트의 직접적인 의미와 함께 작업의 열정까지도 관람객에게 전달했다. 22살 때 시작한 운전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짜릿함과 상쾌함이 작업의 시초가 된 것 같다는 작가는 작품에 대해 “어제 느꼈던 행복과 오늘 느끼는 행복, 내일 느낄 행복은 모두 다르니까요. 이렇게 단어로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페인트로 작업을 해 본 건 처음이라는 지희 작가는 “아크릴보다 발색도 좋고 덧칠에도 유용해요. 냄새도 나지 않고요. 기존의 미술 재료는 친환경 인증이 없는데 페인트는 친환경 인증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도 인증이 되었으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앞으로의 작업에도 노루페인트가 유용할 것 같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외에도 노루페인트는 페인트 드럼통을 테이블로 활용하여 노루컬러가이드 2023을 비치하고 팝업 전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noroopaint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콜라보 레디백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두 마리 노루의 로고, 페인트통, 지희 작가의 캘리그래피 등을 커스텀해 나만의 키링을 만드는 체험도 준비해 가족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BMW 내쇼날모터스, 서울옥션 블랙랏과 함께한 이번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이어 노루페인트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컬러의 아름다움과 힘을 선보이는 협업을 넓혀 갈 것이다. 어디선가 컬러가 눈에 띈다면, 잘 살펴보자. NOROO라는 글자를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NEWS BRIEFING



노루그룹,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023 레드닷' 수상



'2023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 선정

(주)노루페인트

노루그룹,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023 레드닷' 수상

노루그룹이 세계적 권위의 '202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IF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노루그룹의 수상작인 <미라지(MIRAGE)>는 지난 4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출품된 전시 작품으로 노루그룹의 밀라노 현지 디자인&컨설팅 전문 계열사인 NMDS(NOROO Milano Design Studio)가 기획 및 총괄을 맡았다. NMDS는 사막과 추운 기후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인 신기루(MIRAGE)를 잠시나마 희망을 접할 수 있는 순간으로 정의하고, 숨 가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에게 컬러와 빛으로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휴식을 제공하고자 전시를 연출했다. 관람객들로부터 "빛과 컬러로 그려낸 신기루", "음악, 영상, 컬러의 완벽한 조화" 등의 평을 받은 이 전시에 놓인 작품들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3D 프린팅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폴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UAU Project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UAU Project는 노루그룹이 발간하는 『COVER ALL』 Vol. 07의 메인 테마인 'FLEXIBILITY'에서 받은 영감과 책 속의 컬러들을 이용해 이번 작품들을 완성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업계 최초로 세 번이나 받았다."라며 "색채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이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3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 선정

노루페인트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노루페인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측색 시스템을 이용해 색상 설계를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지능형 색상 분석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건축물의 개성과 개인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컬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평범한 색상을 넘어서 뚜렷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찾는 고객에게 정확한 색상을 신속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완성된 기술은 지능형 색상 분석 디지털 전환(DX) 플랫폼과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해외를 포함한 전국의 협력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와 원활한 디지털 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페인트 산업 전반의 연결도 가능하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국내 도료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효과를 불러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연말까지 최선의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성과 및 전략 공유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성과 및 전략 공유

노루페인트는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NOROO SUSTAINABILITY REPORT)를 지난 8월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사회적 요인과 기업 경영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인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대 이슈가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순위화 했다. 중대 이슈 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와 ERS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 국제 표준, 동종업계 주요 이슈 등을 고려해 도출했다.

노루페인트는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해 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활동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했으며,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나 표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안양시 주관 착한기업 선정 및 감사패 수상

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주관 착한기업 선정 및 감사패 수상

노루페인트는 경기 안양시가 관내 나눔운동본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한 기업에 대해 매년 감사패를 전달하는 '안양시 착한기업 감사패 및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에서 'ESG나눔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감사패를 수상했다.

온정 나눔 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부 문화 확산과 실천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2년 이상 연평균 1,000만 원 이상을 지속 기부한 8개 기업에 '착한기업'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2년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28개 기업(착한기업 포함)에 'ESG나눔기업'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우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든 선행은 연못에 던진 돌과 같아 사방으로 파문이 퍼진다.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과 함께 더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업·법인들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안양시 내 새로운 나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또한 "환경과 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변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 주시는 안양 ESG 기업 및 착한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NEWS BRIEFING



충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무척지 수박 품종 기술 이전

안양시는 기탁받은 다양한 성품을 꼭 필요한 기관과 가정에 연계하고, 성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 노루페인트 또한 안양시와 함께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주)더기반

충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무척지 수박 품종 기술 이전

지난 8월 9일, 더기반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충북농업기술원)과 직무육성 무척지 수박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충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무척지 수박 품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무척지 순제로, 순리스는 어미 가지에서 끝순을 제거 후 아들 가지가 나와 세 줄기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손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을 칠 필요가 없어 농업인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수박 농작업은 90%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포복형 재배'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기 쉽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이러한 포복형 재배는 더욱 어려움이 크며 수박 재배 시 척추 제거 작업이 전체 노동력의 70%를 차지하기에 무척지 수박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더기반은 무척지 수박 품종을 보다 빠르게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이번 기술 이전을 실시하였으며 무척지 품종의 단점을 더기반에서



임직원 무더위 극복 프로젝트, 커피&빙수차 이벤트

보완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소비자 기호성과 재배 안정성을 확보해 좀 더 빠른 재배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연구 개발되어 현재의 시점에 도달한 무척지 수박은 더기반의 육종 기술과 함께 인력난과 고령화라는 농촌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직원 무더위 극복 프로젝트, 커피&빙수차 이벤트

채소 종자를 연구하는 더기반의 여름은 혹독하기 그지없다. 숨쉬기조차 힘든 하우스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온몸은 땀으로 절겨 된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지난 8월 16일, 더기반이 커피&빙수차 이벤트를 열었다. 더기반은 넓은 농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에 상가가 전혀 없고 도시에는 매우 흔한 커피전문점도 전무한 환경이라 이러한 커피&빙수차는 더없이 반가운 이벤트였다. 더기반 주차장에 자리를 잡은 깜찍한 푸드트럭은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음료와 빙수를 만들어 임직원들의 더위를 식혀 주었다. 삼삼오오 모인 임직원들은 시원한 음료와 빙수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미처 푸드트럭까지 오지 못한 동료의 간식을 챙겨 다시 일터로 향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혹서기에 이번 이벤트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식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에도 도움을 주었다. 더기반은 앞으로도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3 가을호 사보를 꼼꼼히 읽어주신 독자님께 퀴즈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퀴즈의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TIP 답은 늘 사보 안에 있습니다!

Q

더기반의 종자가공센터는 육종연구소가 개발하여 고정화한 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가공, 유통합니다. 대표적 종자 가공 중 '이것'은 외관의 품질을 높이고, 토양의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종자를 보호합니다. 종자를 분홍, 노랑, 파랑 등의 컬러로 바꿔 토양 위에서 눈에 잘 띄게 해주기도 하죠. '이것'에 쓰이는 NOROO의 친환경 소재는 특히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작업자에게도 무해합니다. 종자 가공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 일까요?

- ① 채팅
- ② 코팅
- ③ 눈팅

*11월 30일까지 chan@noroo.com으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당첨 개별 연락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의 제목은 '2023 가을호 사보 퀴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 드립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68호(비매물)

중별: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안양 바00022 등록연월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일: 2023년 10월 30일 발행처: (주)노루돌딩스
발행인: 강태준 편집인: 정석찬 기획 및 디자인: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사진: URL 스튜디오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발행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문의: 02-2191-7700